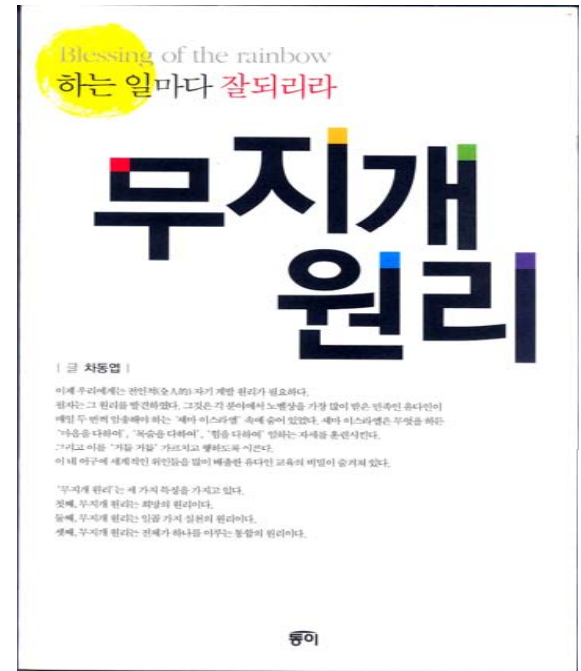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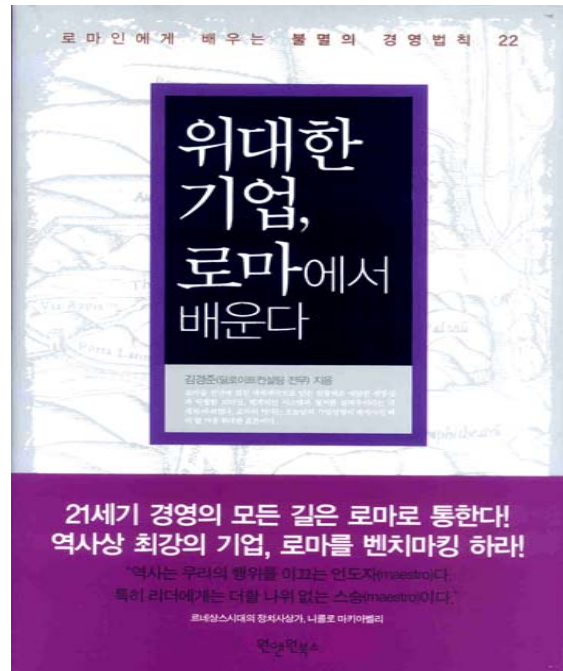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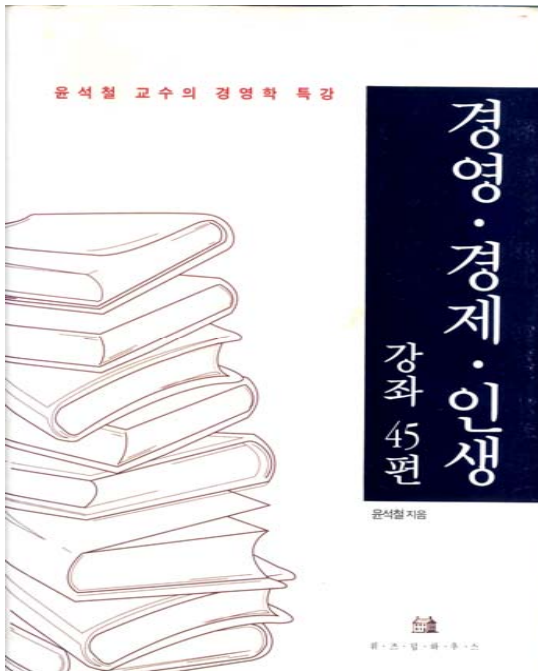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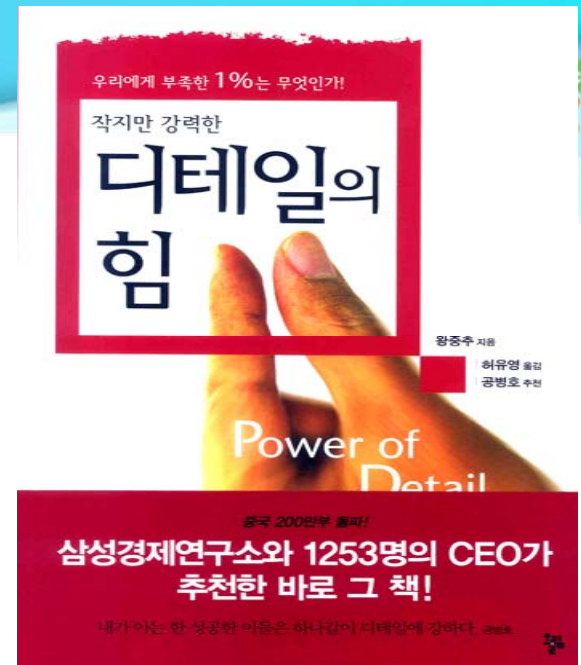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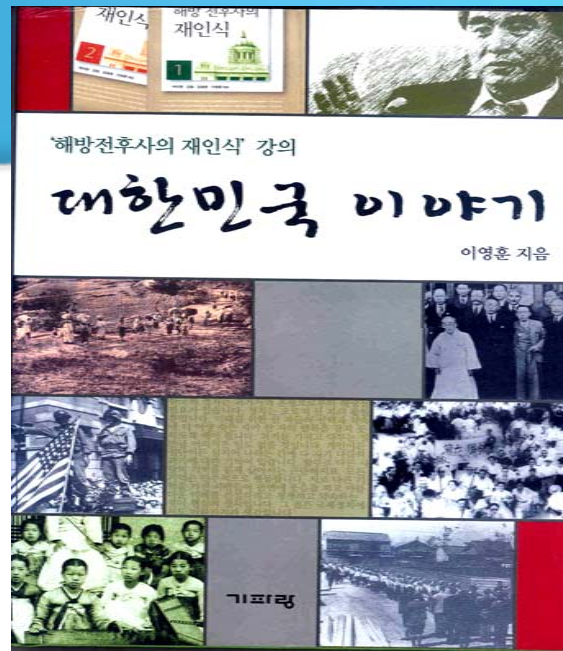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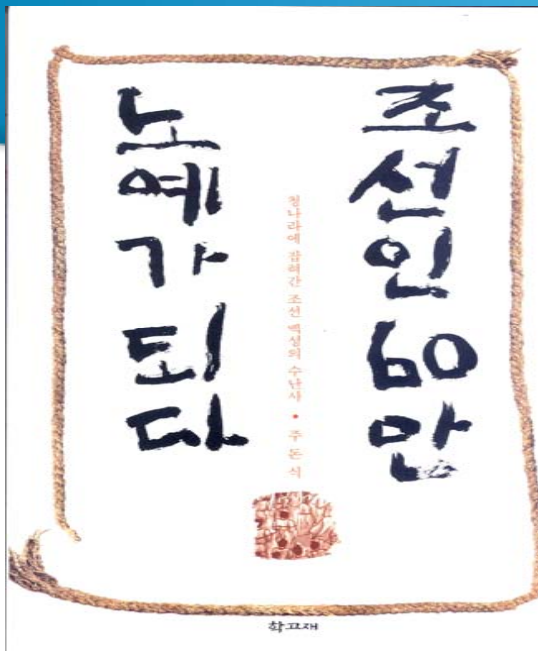


# 회사 잘하는 방법 ABC

2008년 6월  
(주) 대덕넷 이석봉



올바른 철학  
가치관...

깊이 얻는 학습!!!

주위에 대한 관심, 역사인식, 철저함



블루오션 개척하는 프로티어 정신  
너 살고, 나 살고 仁의 정신



소비자의 필요성 인식 → 필요에 맞는 제  
품 생각해내는 상상력 → 상상력의 기  
술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  
U > P > C

## 역소력의 원칙

기본에 충실-다케나카 사례(p137)

**Self-leadership, self-motivation**



인간의 1차적 조건-고마움 (p155)

2차적 조건-겸허

사유하는 국민이 살아남는다

지식 습득, 생존의 절대 조건

우회 목적 - 기술 개발 / 브랜드 투자 / 인재 양성

先憂後樂 - 장기 최적을 위해 단기 최적을 포기하는 희생 정신

저스범복 - hubris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 - 도전을 전  
시에 인식하고 그에 응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주체

지식적 소수 (will minority) - 공동체를 위해  
자기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 (파도 광부/간  
호사)

감수성을 갖고 머리 보며  
몸으로 짓 걸

인생의 기쁨을 지키고  
나오 나르

상상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오오 거르 걸 몸 오

자기 희생도 할 수 있는 인간  
오 나르 나르



글로벌 아이

진 세 근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의 ‘강대국 학습’

중국 정치체제에 관한 퀴즈 몇 개를 풀어보자. 먼저 중국의 최고권력 기구는.

- ①정협(政協) ②전인대(국회) ③국무원(행정부) ④공산당

정답은 ④번이다. 중국 헌법은 ‘공산당의 영도(領導)’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산당 내 최고권력 기구는.

- ①군사위원회 ②정치국 ③서기처 ④기율검사위원회

답은 ②번이다. 정치국에서 국가와 당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주관식이다. 정치국 가운데 최고권력 부서는.

상무위원회다. 정원이 9명인데 서열이 분명하게 매겨져 있다.

현재 공산당 정치국원은 24명이다. 원래 25명이었지만 천량위(陳良宇) 상하이(上海)시 서기가 최근 숙청됐다. 이들 24명이 중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모든 정치국원에게 각자 담당 분야가 있다.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중국 서열 3위)는 “뭉이 두 개쯤, 아니 열 개쯤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다. 이런 정치국원들이 한 달 반에 한 번씩은 반드시 모인다. 1~2시간 회의가 아니다. 하루 종일 함께 지낸다. 모임이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목적

은 학습이다. 정식 명칭은 ‘정치국 집체(集體) 학습’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집권 뒤 생긴 일이다. 2002년 12월 26일 첫 수업이 시작됐고, 지난해 10월 23일 제35차 학습이 있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한 나라의 최고지도부 전체가 학습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모이는 국가가 중국 외에 또 있을까. 학습 내용은 지구촌 경제화, 에너지 대책, 국가발전 전략, 공산당의 집권능력 향상 등 다양하다. 중앙 당교(黨校), 사회과학원 등 국책연구기관·대학 등의 학자들이 한 번에 2~3명씩 강사로 초빙된다.

공부한 내용은 철저한 대외비다. 그러나 2003년 11월 24일 진행된 제9차 학습 내용은 공개됐다. 주제는 ‘세계 역사상 9개 주요 국가의 15세기 이래 흥망사’였다. 수도사범대학의 치스룽(齊世榮) 교수와 난징(南京)대의 첸성단(錢乘旦)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그리고 2004년 4월 9개국의 흥망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대국(大國)의 굴기(崛起)’ 제작이 결정됐다. 굴기란 벌떡 일어선다는 뜻이다. 3년간의 준비와 제작 끝에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중앙방송국(CC-TV) 채널2가 이를 12부로 나눠 방영했다. 다큐멘터리는 강국이 되는 비결을 제도·국민교육·소프트파워로 요약했다.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근대 서방국가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자유경제와 민주제도의 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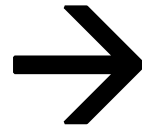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기만 할까.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중국의 역사는 이데올로기 지향의 의식형태 사관(史觀)이다. 반면 ‘대국의 굴기’가 전하려는 내용은 일종의 패권(霸權) 사관이다. 9개국 발흥의 역사란 곧 교육·민주주의 등 좋은 가치를 모두 동원해 강성해진 뒤 다른 나라를 침탈한 패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의식형태 사관으로 보면 중국은 제국주의의 피해자다. 그러나 패권 사관은 ‘역사는 힘있는 자의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점으로 보면 ‘대국의 굴기’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내놓은 ‘이정표적 선언’이다. 과거의 도덕적 입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로 열 번째 ‘굴기하는 패권’이 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역사는 반복하지만 결코 기계적으로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는 결코 식민 확장의 시대가 아니며, 대국이 소국을 무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금 대내적으로 ‘화해(和諧·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조화를 앞세울 때 중국은 비로소 진정한 굴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일)으로부터의 소외



인격 수양, 자기 완성의 과정

모든 일(노동) 자체가 사회적 계약으로 신용의  
지킴을 수업하는 정신 수양이며  
자기의 완성이므로 일하는 자체가  
곧 도를 닦는 것과 같다.

돈보다 귀중한 것은 인격의 완성이니,  
이익이 없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평생 열  
심히 정진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세키몬 신카쿠(石門心學)의  
핵심인 諸業即修行 혹은 諸業即修業이다.

-이시다 바이간 (石田 梅岩)

# 대한민국 샐러리맨, 일에 대한 만족도 꿀씨 흥미도 꿀씨

(32개국 중 32위)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

## 근로시간 가장 많지만 생산성은 세계 최하위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인 근로자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가 특히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라서치센터가 실시한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결과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45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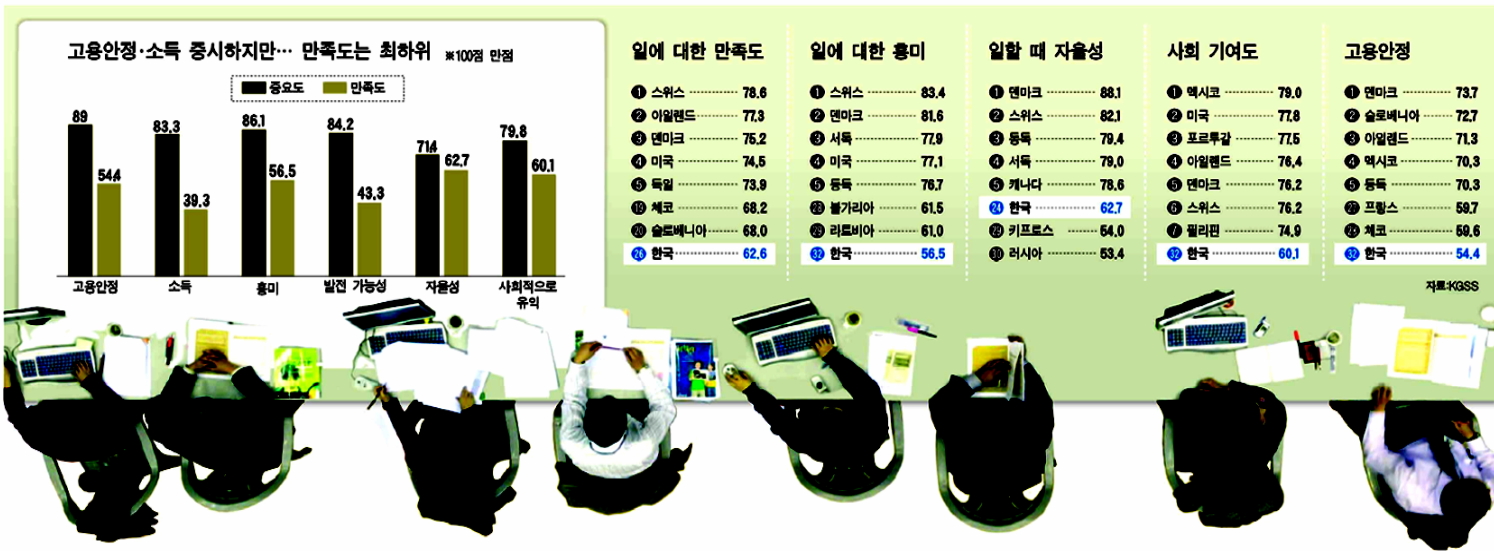
조사 결과 한국 근로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2.6점이었다. 같은 조사를 한 국제사회조사연합(ISSP)과 동아시아 사회조사연합(EASS) 회원국 32개국 중 꼴찌다. 비교 대상국 중 1위는 스위스로 만족도가 78.6점이고 아일랜드·덴마크·미국 등도 만족도가 75점 이상이었다. 일에 대한 흥미는 56.5점이었다. 역시 32개국 중 꼴찌다.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흥미도 없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의미다.

양종희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근로의욕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일에 대한 흥미나 만족도를 모두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8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57시간으로 회원국 중 1위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2008'에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분석대상 55개국 중 55위다.

최석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 근로자들에 비해 수동적으로 일하고 자신의 능력을 회사에서 발휘할 생각도 무뎠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며 "이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성장동력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찬·한은희 기자



## 후진국보다 못한 근로의욕, 왜 “외환위기 이후로 잘리지 않으려 애쓴 기억뿐”

한국 근로자들은 일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안정과 소득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54점(100점 만점)에 불과하다. 소득 만족도는 39점밖에 안 된다. 일에 대한 흥미나 발전 가능성도 자신의 일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만족도는 43~56점 수준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근로의욕 저하로 나타난다. 대구의 중견 자동차부품회사 부장인 손성호(가명·45)씨는 완성차업체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과업이 장기간 벌어질 때면 가슴이 철렁한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외정 세대에 딱 걸린 자신이 먼저 해고될 것이라 불안할 때문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로는 잘리지 않으려 애 쓴 기억밖에 없는 것 같다"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눈치만 보게 된다"고 말했다. ◆생각과 다른 현실=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89점)하고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고용안정 정도는 54점밖에 안 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점수로 35점이나 됐다. 비교 대상 32개국 중 차이가 가장 크다. 스위스나 미국·일본은 그 차이가 11~20점밖에 안 된다. 그만큼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적다는 의미다. 일에 대한 흥미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은 일에 대한 흥미의 중요도가 86점, 만족도는 56점으로 차이가 20점이나 됐다. 흥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스

위스는 그 차이가 6점, 3위인 미국은 10점에 불과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인지(32위)에 대한 확신도 다른 나라 근로자들에 비해 약했다. 한국보다 경제상황이 낙후된 남아프리카공화국·체코·헝가리·필리핀·동독·라트비아 근로자들이 오히려 고용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일에 대한 흥미도 높았다. 김상욱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 상황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

고 더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런 현상은 직무에 대한 불만, 조직 헌신도에 대한 저하, 빈번한 이직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직장에 갖는 충성도는 조사 대상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였다. 임금근로자도 계속 남고 싶은 사람의 비율은 35.5%에 그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29위로 하위권이었다. 대신 자영업을 선호(65.5%·4위)했다. 직장에서 탈출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능력껏 일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한다. ◆20대도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강모(26·여)씨는 2년 전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은행에 입사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서 활기가 사라지고 있다. "새로운 욕

적의식이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일한 뒤 뭔가 성취감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는데 지금 맡은 일이나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비전이 안 보인다"는 게 이유다. KGSS 조사 결과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의 직업안정성, 일에 대한 흥미, 일을 통한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 대상 26개국 중 꼴찌다. 20대도 같은 항목에서 20위권 밖에 랭크됐다. 일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24위)이다. 김 교수는 "기술은 '직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보다 단지 '직장'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투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찬·한은희 기자 wolsu@joongang.co.kr



OECD 통계로 본 한국인의 삶

# 일은 가장 많이 하고 삶의 질은 바닥권

한국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여가 등 삶의 질도 하위권을 맴돌았고 공교육비 부담도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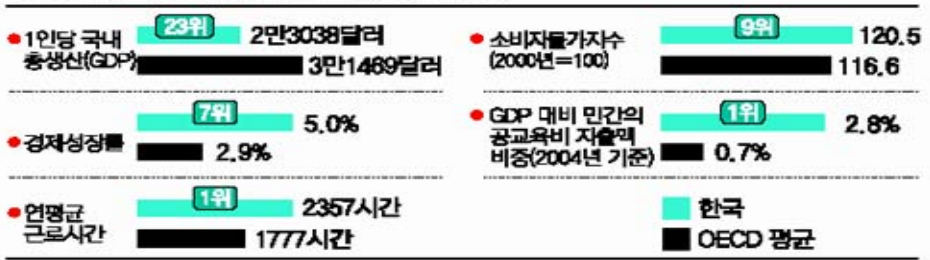
### ● 오래 일하지만 소득은 낮아

8일 OECD가 내놓은 '2008년 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5년(2354시간)보다 3시간 늘어난 2357시간으로 30개 회원국 중 가장 길었다.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 1777시간에 비해 32% 더 일했다.

일하는 양에 비해 '소출(所出)'은 매우 낮았다. 2006년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 3038달러로 23위였다. OECD 평균은 3만1469달러.

2006년 노동시간당 GDP는 미국(100)을 기준으로 한국은 41로 조사돼 △터키(29) △멕시코(32) △폴란드(38)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일본은 71이었다.

### 한국과 OECD 회원국 비교 (2006년 기준)



순위는 OECD 30개 회원국 중 순위

자료: 2008년 OECD 통계연보

## 근로시간 연평균 2357시간... 30개국 중 최고

## 문화 여가 지출은 GDP의 4.5%... 27위 그쳐

노동시간당 GDP가 미국을 앞선 국가는 △룩셈부르크(143) △노르웨이(141) △벨기에(104) △네덜란드(102) △아일랜드(102) 등이었다.

한국의 노동시간당 GDP 증가율은 2005년 4.5%로 2위였지만 2006년에는 3.4%로 3위로 내려앉았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5년 2위(5.9%)에서 2006년 4위(4.6%)로 하락했다.

### ● 삶의 질은 OECD 바닥권

여가나 문화 등의 삶의 질도 낮았다. 2005년 기준 한국의 문화, 여가 지출액은 GDP의 4.5%로 27위를 차지했다. 1인당 총 보건지출액(26위)도 바닥권을 맴돌았다. 자동차 100만 대당 사고는 491.2건으로 2위였다.

소비자물가는 OECD 회원국 평균(100)과 비교해 78(24위)로 조사됐다. 2000년을 100으로 한

2006년 기준 소비자물가 지수는 120.5(9위)로 OECD 회원국 평균(116.6)보다 높았다. 물가는 낮은 편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높다는 뜻이다.

한국인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2004년 기준 2.8%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OECD 평균은 0.7%. 학교에 내는 각종 수업료와 납부금 부담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사교육 열기까지 감안하면 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는 셈.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60여 개국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6년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읽기 분야는 1위, 과학은 5위, 수학은 2위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인구 대비 일하지 않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1%(28위)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의 단면을 보여줬다. 외국인 인구 비율은 2005년 0.4%(25위)에서 2006년 1%(20위)로 상승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명 째은 한국 중소기업

## 5년 버티는 곳 20%뿐...생산성 일본 절반 수준

실리콘밸리 같은 클러스터(기술집약 산업단지) 위주의 과학기반형 중소기업이 많은 곳이 미국이라면 일본은 가업을 잇는 가계승계형, 이탈리아는 가족경영 방식이 많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징은 무엇까. 두드러진 색깔이나 특징점을 찾기 힘들다는 게 중소기업계 스스로 내린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3일 내놓은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열 중 아홉은 종업원 10인 미만이었다. 이들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만7000달러로, 같은 규모의 선진국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작았다. 영국은 8만 5000달러, 이탈리아는 7만8000달러, 일본은 5만4000달러였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수명이 짧고 경쟁력도 뒤쳐진다. 일본에선 중소기업이 한번 창업하면 열에 일곱은 5년 이상 존속

한다. 한국에선 5년 이상 굴러가는 중소기업이 열 중 둘이다. 창립 5년 미만 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고 30년 이상 장수기업은 1.5%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뛰어난 기술로 무장한 신생 업체가 줄을 잇는 것도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대기업 납품업체로 전략 작아서 약한 부실업체 늘어”

아니다.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를 100으로 봤을 때 신기술 개발이나 제조기술·디자인에서 70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을 100%로 봤을 때 독일(93%)·이탈리아(76%)·일본(71%)에 한참 뒤진 4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엔 작지만 탄탄한 강소기업보다 작아서 약할 수밖에 없는

부실업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중소기업의 도약을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일까. 중소기업인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저해하는 1순위 요인으로 불공정 하도급 같은 부당 상거래(31.6%)를 꼽았다. 공장 부지와 관련된 행정규제(24.6%), 복잡한 조세제도(15.4%), 잦아한 신고·보고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부담(14.4%)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답했다. 경영 위협 요인으로는 ▶내수 침체(35.8%) ▶인력 부족(29%) ▶중국과의 경쟁(28.4%)을 꼽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오동운 책임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은 선진국과 달리 대기업 납품업체로 성장해 대기업이 얼마나 일거리를 주느냐에 기업의 성패가 좌우됐다. 국내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해외 시장을 뚫으려면 독자 기술·노하우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혜리 기자

hyeree@joongang.co.kr

# 日 경제 주춧돌은 '장수기업'

578년 설립된 일본의 건축기업 곤고구미(金剛組)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다. 2006년 자금난으로 다른 건설사에 인수됐지만 기업의 이름과 종업원, 사업부문은 그대로 유지하며 1430년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가 1000년을 넘기며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는 투철한 장인 정신을 꼽을 수 있다. 곤고구미는 땅에 묻히는 기초공사나 눈에 안 띄는 천장에 더 비싼 자재를 썼다.

또 593년에 세운 일본 최고(最古)의 사찰 시텐노지(四天王寺) 등을 비롯해 이 회사가 세운 모든 건축물의 보수기록부도 대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4일 펴낸 '일본 기업의 장수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의 장수기업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충실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창업한 지 200년이 넘는 기업은 5586개(41개국)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146개가 일본

에 몰려 있다. 이어 독일(837개) 네덜란드(222개) 등의 순.

일본에는 1000년 이상 기업이 7개, 500년 이상 기업 32개, 100년 이상 기업은 5만여 개가 있다. 한국에서는 110년이 넘는 두산(1896년)과 동화약품공업(1897년) 정도가 오래된 기업으로 꼽힌다.

## 200년 넘는 기업 3146개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무장 90년대 불황 탈출 큰 역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철저한 위험관리와 고객에 대한 신용은 일본 장수기업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1689년 주조(酒造)회사로 창업한 스즈키(鈴木)는 호황기에도 생산량 증가율을 전년대비 5%로 유지했다. 잘 팔린다고 사업을 크게 늘리면 불량품이 나온다는 이유에서였다.

자기 본업(本業)을 중시하는 일본 특유의 가치관과 외부 침략을 거의 받

지 않은 일본 역사 등도 장수의 주요 요인.

이 밖에 '상인 중의 상인'으로 꼽히는 오사카(大阪) 상인들이 돈을 남기는 것은 하, 가게를 남기는 것은 중, 사람을 남기는 것은 상이라 여긴 점을 들며 이들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한 것도 장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장수기업은 일본 경제의 주춧돌이기도 했다. 액정용 도금기판 분야에서 세계 시장 90%를 점유하는 스미토모(住友)사를 비롯해 다수의 오래된 일본 중소기업들이 세계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 경제가 1980, 90년대 엔고(高)와 장기불황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도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장수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최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등에 따라 가업승계의 단절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속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1000년 이상 장수기업

기업	업종	창업연도
곤고구미(金剛組)	건축	578
게이온칸(廣雲館)	온천여관	708
호시(法師)	온천여관	718
도라야쿠로가와(虎屋黒川)	전통과자	794
다나카이가부쓰구텐(田中伊賀(仏具店))	종교용품	889
히라이조에이트(平井常栄堂)	의약품	971
이치와(一和)	전통과자	1000



시론

# 디은 '200년 기업' 3000개 넘는데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싶다.

곤고구미를 세우고 1400년 넘게 유지해 온 것은 바로 백제인들이다. 금강(錦江) 유역에 살던 세 명의 백제인이 쇼토쿠 태자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錦江'의 일본식 표기인 '金剛'을 이름삼아 기업을 창업한다. 안타깝게도 2006년 자금난으로 다카마쓰에 경영권이 넘어갔지만 1428년 동안 경영권을 이어온 사람들은 분명 충청도 백제인의 혈통이다.

왜 그들은 자기 땅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야 기업을 만들었을까. 장인정신이 없어서? 그보다는 왜 똑같은 사람이 일본에 가서야 장인정신이 더 생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조정 박제가의 '북학의'(1778년)가 의문을 풀어준다. "시장에서 물건을 매매하거나 자와 먹통, 칼과 끌을 갖고 남의 집에 품팔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습게 여겨 혼인길마저 끊어진 사람이 많다." 우리의 상업 천시 풍조를 개탄하며 쓴 글이다. 이 땅에서 기업 활동은 그처럼 천시됐다. 자식에게 넘기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제도적으로도 조선의 공식 정책은 역말(抑末), 즉 상업 탄압정책이었다. 금난전권은 폭력으로 민간기업을 파괴하는 도구였다. 조선 전에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았다. 우리 민족성이 기업 활동에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탄압하고, 천시하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 역사가 일천했던 것이다.

외적의 침입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 대규모의 외침은 1636년의 병자호란이었다. 그 후 한일강제합방까지 약 270년간 외침이 없었음에도 이 땅에는 어떠한 장수 기업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미쓰코시(1673년)와 스미토모(1691년)가, 미국에서는 듀폰(1802년)과 제너럴일렉트릭(1890년)이 일어나서 커가던 시기다.

## 물려줄 수 있어야 장수기업 나와

물론 이 땅에도 기업의 싹이 틈 적은 있었다. 박제가 등과 '코드'가 맞은 정조는 신해동공(1791년)으로 자유기업주의의 빛장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약간만 열었는데도 기업 활동이 시작됐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퍼졌다. 최인호의 소설로 다시 태어난 조선 유일의 거상 임상옥(1779~1855)도 그런 시대적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행운은 거기까지였다. 정조 사후 세상은 다시 선비와 정치만이 판치게 됐고, 겨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사업가들은 철퇴를 맞는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돈 버는 일이 인정받게도 됐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일로 바뀌기도 했다. 물려주는 것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앞으로 100년 뒤에는 이 땅에도 200년 된 기업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가업 상속을 용인할 만큼 '가진 자'들을 인정하고 있는가. 1430년 된 곤고구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14일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 '일본 기업의 장수 요인 및 시사점'은 광복 전까지 수백 년간 왜 우리가 일본에 늘 당하기만 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 기업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일본에는 1430년 전부터 기업이 있었다. 서기 578년 창업된 곤고구미(金剛組)가 그 주인공이다. 200년 이상 된 기업, 우리 역사로 보면 정조(재위기간 1776~180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말인데, 그 숫자만도 3000개가 넘는다.

## 우리는 근세까지 상업 탄압-천시

우리의 사정은 대조적이다. 가장 오래됐다는 두산이 112년이다. 다시 말해 고종 황제 전에는 제대로 된 기업이 없었다. 그러니 무슨 힘으로 일본을 당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에게 기업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 보고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일본인보다 장인정신이 모자라고 신뢰를 가볍게 여기며, 외적의 침입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나는 상업을 천시하고 탄압하던 우리의 사고방식과 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고

# 일본 맥주 따르기의 달인 “단골 성화에 은퇴도 못 해”

일본 최고의 변화가인 도쿄 긴자 (銀座)의 중심부 주오도리 나나초에.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집인 ‘삿포로 라이언’은 18일 오후 5시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 280석의 자리가 거의 가득 찬 가운데 5명의 예약자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자리로 안내되자 “‘에비하라’ 맥주 주세요”라고 주문했다.

‘에비하라’라는 맥주는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 주인공은 2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맥주 따르기 장인(匠人)’ 에비하라 기요시(海老原 清・60·사진)다. 카운터에서 주문 받은 에비하라는 맥주를 능숙하게 따랐다. 800cc가 들어가는 대형 생맥주 잔이 거품과 함께 가득 채워지는 데는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에비하라는 이 가게의 하루 평균 주문량 1000L 가운데 10분의 1인 100L를 따른다. 약 200잔이나 된다.

하루 1000명, 연간 30만 명의 맥주 애호가들이 찾는 이곳에서 에비하라는 1985년부터 잔에 맥주를 채워왔다. 66년 처음 취직할 때부터 따지면 근무 기간은 42년으로 늘어난다.

올 1월 정년을 맞아 퇴직했지만 삿포로 라이언과 ‘에비하라 맥주’를 즐기는 단골들의 요청으로 지금 은 아르바이트로 매주 월·수·금 사흘만 출근하고 있다.

에비하라는 “당초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연장에 준다는 제의가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얼 틀 없이 카운터로 주문이 날아드는 맥주를 따를 때는 혼신의 힘을 쏟아 붓기 때문에 정신력과 체력의 소모가 크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는 5년 전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져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생각만큼 편하지도 쉽지 않은 맥주 따르기에 에비하라는 인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일본인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아무리 단순한 기술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면 한 직장에 서 60세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에비하라도 맥주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그만의 관리 비법을 42년째 지켜왔다.

도쿄 긴자 주점의 명인 42년 같고 닦은 노하우

“잔 11도 기울여 받으면 미세한 거품 기막힌 맛”

이름 딴 맥주까지 등장 단골 3대 대물림 손님도

에비하라는 “맛있는 맥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청결”이라고 말했다. 오래된 맥주가 남아 있으면 효모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맛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맥주 탱크를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핵심 작업이라서 한번도 후배들에게 맡긴 적이 없다. 깨끗한 탱크 관리 다음에는 적절한 발주 타이밍이다. 맥주는 2-3일 내에 소화해야 가장 제 맛이 나기 때문에 고객이 밀려들 때 맥주가 품절이 돼도 안 되지만 들어온 맥주가 너무 오래 남아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

에비하라는 “일기예보와 뉴스를

늘 챙기고, 고객들의 예약 건수를 주목하는 것도 발주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된 맥주는 2도의 저온이 유지되는 지하 맥주 저장고에서 안정화 단계를 거친다. 트럭으로 실려오는 동안 맥주가 흔들리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압력으로 탄산가스를 주입해 24시간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에비하라의 ‘묘기’는 맥주잔을 11도로 기울여 맥주를 따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빛을 발했다.

그는 “40여 년 감각으로 터득한 것으로 맥주를 따를 때 미세한 거품이 가장 잘 생기는 각도”라며 “거품과 액체의 비율이 3대 7일 때 맛은 물론 보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주의 특 쏘는 맛을 내게 하는 탄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 마실 때까지 거품 막을 꺼뜨리지 않고 마셔야 한다”며 음주 요령까지 알려줬다. 그가 왜 ‘맥주의 달인’이라 불리는지 생생하게 실감하는 대목이었다.

에비하라는 “자신을 맥주 따르기 명인으로 만든 것은 결국 고객에 대한 사명감과 배려”라고 말했다.

삿포로 라이언 비어홀이 긴자 나나초메에 들어선 것은 74년 전인 1934년으로, 내부 장식이 창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 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맥주 맛에도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에비하라는 “수십 년째 출입해 온 일부 고객이 아들과 손자까지 데려와 3대째 ‘에비하라 맥주’를 찾게 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부 고객은 지방에서 출장 오면 반드시 들르기도 하고 10명가량의 고객은 매일 저녁 에비하라 맥주를 마시러 온다.

지바현의 농가에서 8형제 중 여섯째로 태어난 에비하라는 “고교 졸업 후 긴자에서 일해 보고 싶어 긴자 라이언에 지원한 것이 평생 직업이 됐다”며 “체력이 다할 때까지 맥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에비하라는 “내일은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라며 이날도 밤 늦게까지 거품 가득한 맥주를 따랐다.



# [남기고 꿈의여정 50년 칸타빌레] 20. '잇쇼켄메이'

일본 가수들 리허설 할 때도 목숨 바치 듯 혼신의 힘 쏟아



필자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앨범 재킷용으로 찍은 사진.

일본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친절·성실·검소라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누구에게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언제나 생글거리는 표정으로 말끝마다 '하미, 하미! (네, 네!)'하는 일본 사람들의 습성이 처음에는 지나치다 싶어서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다. 게다가 아주 작고 세심한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고 배려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상냥한 성품이나 세심한 배려가 기분 나쁘지 않게 다가왔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은 가난하다 싶은 정도로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일본 사람들의 성실함이었다. 매사에 부지런하고 열심이었으며, 모든 일 처리가 정확하고 딱 부러졌다. 그런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잇쇼켄메이(一生懸命)'다. '열심히 한다'는 뜻이지만 단어 그대로 '일생 목숨을 바치겠다'는 경건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열심히'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뜻이 된다.

일생 목숨을 바쳐 열심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는 뜻일까? 일본 사람들은 청소나 빨래를 할 때도 '잇쇼켄메이' 하고, 공부나 연습을 할 때도 '잇쇼켄메이' 하겠다고 하며, 심지어 식사도 '잇쇼켄메이'로 먹겠다고 하는 등 매사에 입버릇처럼 이 말을 썼다. 아마 일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잇쇼켄메이'일 것이다. 그러니 무대에 서는 가수들은 얼마나 더 '잇쇼켄메이' 했겠는가.

일본 가수들은 대기실에서나 무대 뒤에서는 여느 사람들처럼 웃고 떠들며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는 하나 같이 무대 바로 뒤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짧은 묵념을 했다. 아마도 '잇쇼켄메이' 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인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무대에 오르면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건 연습이나 리허설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요즘 일본 방송과 연예계로 진출한 몇몇 후배 가수·배우들이 일본에서는 리허설과 본 공연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리허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종종 얘기하는데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48년 전부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니 지금이야 더 하지 않을까 싶다.

일본 사람들을 '왜놈'이라거나 우리나라를 35년간 식민 통치한 간악한 사람들이라고 혹평하는 얘기만 들어왔던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무대에 오르는 사람에게 무대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무대에 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그때가 마지막 공연인 것처럼 온 몸을 불사른다. '잇쇼켄메이', 일생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무서운 정도로 정확하고 계획적인 국민의 습성과 문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유명 배우나 배우들도 공연할 수 있는 지방 소도시 문화 시설. 이른바 선진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일본은 내게 세계로 가는 첫눈을 뜨게 해준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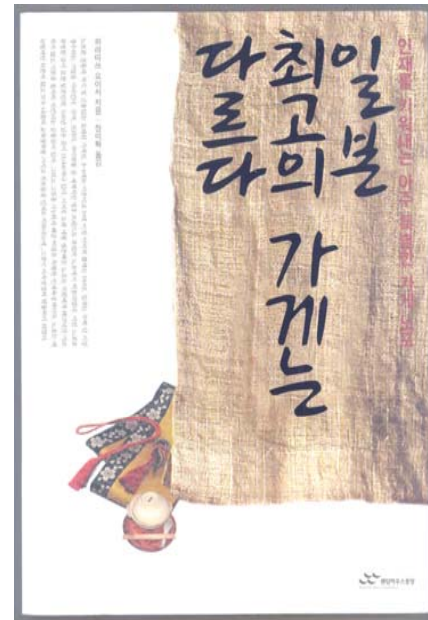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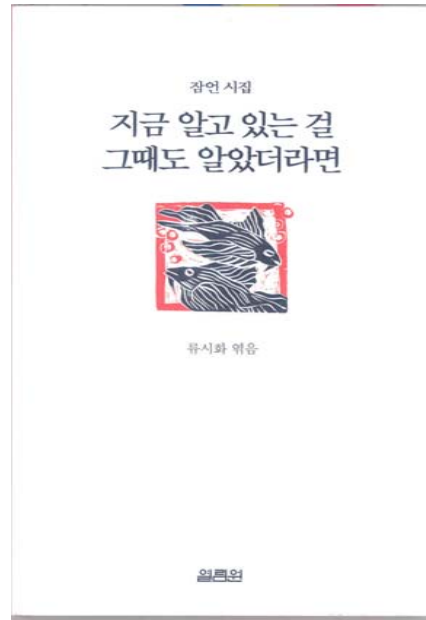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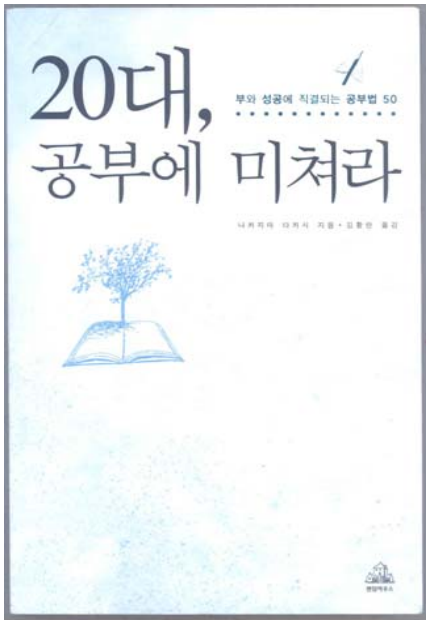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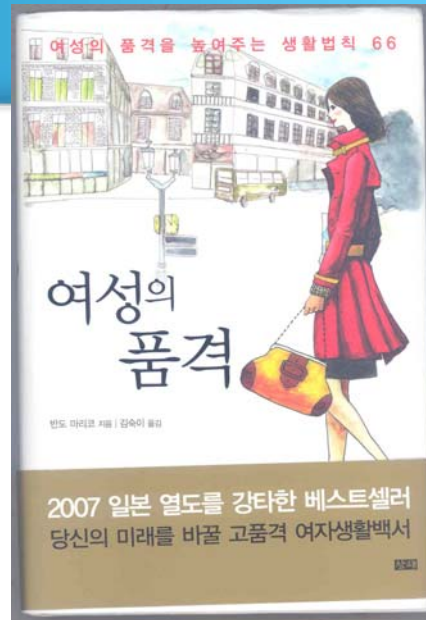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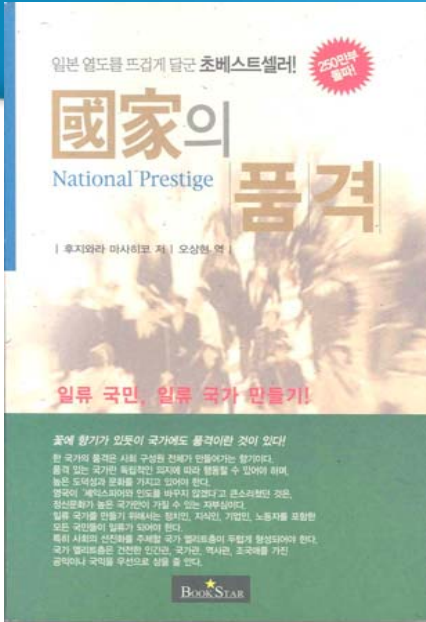
특히 지역마다 훌륭한 공연장이 있었다. 도쿄에서 했던 공연을 전국 각 공연장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부러웠다. 도쿄에서 한 공연은 대부분 전국 순회 공연으로 이어졌다. 나도 일본 전국을 도는 순회 공연에 몇 차례 참가했는데 그때마다 지역 공연장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600~70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도 있었지만 시설 면에서 결코 대도시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웬만한 도시에는 그런 문화 공간이 있었다. 당연히 그런 곳에서의 공연은 대도시에서와는 또 다른 교감과 감동을 주었다. 국립극장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공연장이 없었던 당시 우리나라 현실을 떠올리며 몹시 부러워했다. 역시 앞선 나라였다.

인사하기 등 기본

인재 양성

지속 가능성

느리게 호흡하기





# 품격(品格)

최근에 후지와라 마사히코(藤原正彦)가 쓴 『국가의 품격』이라는 책이 관심을 모았다. 품격 있는 국가는 품격 있는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품격 있는 개개인이 있어야만 품격 있는 가정, 품격 있는 기업, 품격 있는 사회가 성립된다. 개인의 품격이 우선인 것이다.

그럼 인간 개개인으로서의 품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정의감, 책임감, 윤리관, 용기, 성실, 우정, 그리고 인내력,

지속력,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 또 판단력과 결단력, 타인에

대한 배려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약자를 돌보고, 강자에

게 아첨하지 않고, 친절에 보답하는 행동 규범은 어느 종교나 도덕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돈이면 다 된다'는 말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방식은 천박하다고 가르친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망가뜨리고, 남을 상처 입히거나 죽이고, 남을 질투하고 헐뜯는 행위는 어느 사회, 어느 종교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 인문학은 국가경쟁력의 밑거름

인문학을 경시하는 세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60년대 경제개발 시대부터 과학기술, 경제, 경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팽배한 가운데 인문학은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90년대 말 외환위기 사태를 치르면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취업난 속에 많은 우수 학생이 도서관에서 각종 고시 공부에 몰두하는 가운데 인문학 공부는 출세 가도의 장애물처럼 여겨졌다.

무한경쟁이라는 선동적 구호는 학생들을 인문학에서 아주 멀어지게 하였다. 근 10년간 많은 대학교에서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학과 이름을 바꿔 학생 유인작전을 벌이는가 하면 폐과 조치 비명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인문학 위기는 연구, 교육으로 나눠 생각해 볼 문제다. 연구가 위기라면 허물이 학계로 돌아간다. 교육이 문제라면 대학 강단에서 인문학을 강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그런데 한국 인문학은 뽐낼 정도는 아니지만 광복 후 연구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다른 분야 못지않게 학문적 기반이 꽤 튼튼하게 다져졌다.

위기론은 사실 인문학 각 분야 속을 다 들여다보고 나온 소리는 아니다. 내

## 테마진단

이 태 진 서울대 인문대학장



가 속한 대학교에서 매년 하는 학생들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인문대학이 계속 상위에 올랐다. 이로 보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사회적 관심이 아닌가 싶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문대학 졸업자를 경영학, 법학 전공자보다 낮춰 평가하여 차별하니 어떻게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2007년 9월 나는 큰 모험을 감행하였다. 경영학에서처럼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을 한국 최초로 개설하여 '인문학 위기'에 정면 승부를 걸었다. 응모자는 정원의 두 배가 넘었고, 17주간 과정에서 원우생들의 인문학 강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강의실은 늘 후끈 달았다. 지금 진행 중인 제2기 생 열기도 식을 줄을 모른다.

나는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문학자들이 그간 사회와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큰 잘못이다. 사회 지도자들이 인문학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금물이다. 경영 일선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문학의 수요자란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 경영 책임자로서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우수 고객이다.

대한민국은 그간 피나는 노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 되었다. 이제 더 발전하려면 인문학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학생 때 정규과정을 통해 인문학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공학, 경영학 등에서 이미 인문학

의 이런 중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그를 반기면서 "그대가 불원천리하고 내게 왔으니 이제 내 나라가 이름게 되겠구나"라고 말했다. 이에 맹자가 "하필 이(利)입니까, 인의(仁義)도 있는데"라고 핀잔을 주었다. 2000년 이상 왕도정치의 길잡이 역할을 한 유명한 대화다. 혜왕이 말한 '이'는 부국강병의 술로서, 우리가 60년대 이래 과학기술, 경제, 경영을 중요시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맹자가 진정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강조한 '인의'는 곧 인문학 영역이다. 맹자가 이상적이라고 한 인의를 앞세운 부국강병 기회를 우리는 이미 놓쳤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기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인문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하루속히 강소국 꿈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공자는 "마을에 어질고 후한 풍속이 있어야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인(仁)을 택하여 신조로 삼지 않으면 앎(知)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공자, 그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야 하는 사명을 지시하는 듯하다.

# CEO들, 인문학에 길을 묻다

## 文·史·哲서 창의력 배우기...명강사 인기 상한가

# 장면1 "아리아리랑~쓰리쓰리랑~아리리가 났네~"  
 지난달 29일 서울대 신양인문학술관에서는 채수정 명창의 판소리 한마당이 벌어졌다. 이들은 서울대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 AFP 수강생들로 이지형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이사, 허태수 GS홈쇼핑 사장, 김기열 KTF 부사장 등 기업인들과 윤홍근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등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이다.

# 장면2 지난달 초 한 CEO 조찬 강연장. 경영·경제학자 대신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강사로 초빙됐다. "여름 CEO인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으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그것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CEO들이 인문학에 빠졌다. 그들은 왜 인문학에 열광하는 것일까.



서울대 CEO인문학 과정을 수강하는 CEO들이 부부 동반으로 연소리와 함께 강의를 듣고 있다. (이승희기자)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으면 우리 회사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 ◆지식에 대한 갈증 해소

CEO들은 “인문학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지식에 대한 갈증 해소가 단순한 ‘기본전환’에 그치지 않는다. CEO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경영학에서 배울 수 없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 인문학 과정인 AFP 과정에는 이번 학기 45명 정원에 입학경쟁률 3대1을 넘기도 했다. AFP는 ‘Ad Fontes Program’ 약자로 Ad Fontes는 ‘원천으로’라는 의미의 라틴어다.

서울대 인문학 과정을 듣는 김나희 제일기획 사장은 “창의력과 북돋는 아이디어는 경영에서 생명”이라며 “경영 실무에 몰입하다 보면 외부에서 신선한 자극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 특강을 들으면서 인문학 분야에 대한 맛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할 것을 강조해 왔다”면서 “외부에서 인문학 강사를 초빙해 회사 차원에서라도 비슷한 강의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백순 신한지주 부사장은 “인문학은 곧 스토리텔링이라는 면에서 경영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며 “단순히 화젯거리를 주는 차원을 넘어 고객과 직원 모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져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찬강담회와 각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 CEO들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에서 인문학 강의가 상종가를 치면서 철학 역사학 등을 전공한

교수와 스타강사 모시기 열풍이 불고 있을 정도다.

이태진 서울대 인문대학장은 “경제가 발달할수록, 경영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인간 본연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이 주목받게 마련”이라며 “경영만큼 인문학적 교양이 필요한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고, 삼성전자 포스코 등 세계 초일류 기업이 나오면서 벤처마케팅 대신 창의력이 기업 경영에 필수로 떠오르면서 인문학이 가치를 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휴식 같은 존재”

윤홍근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수강 그 자체만으로도 인성이 풍요로워진다”며 “그 자체로도 인생에 영감이 됐다”고 말했다. 경영과 경제 일상에 지친 CEO

들에게 인문학이 휴식 같은 존재라는 설명이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사장은 “역사와 문화 그 모든 분야를 포함해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며 “자기 근본을 성찰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경영에 꼭 도움이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수강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 자체로도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각 대학에 많은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지만 인문학을 매개로 만난 동문들 네트워크가 끈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인문학 재발견이 눈길을 끌면서 경영·경제 법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당했던 인문학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선 전 HP 회장이었던 칼

리 피오리나가 역사학과 철학을 전공했던 것처럼 경영·경제뿐 아니라 인문학을 전공한 CEO들이 많다.

서울대 인문학 강의를 듣는 최동수 한영알코비스 사장은 “경영·경제학을 전공해야 실무에 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며 “전반적인 흐름을 꿰뚫는 혜안을 갖추기 위해 인문학은 필수이기 때문에 인문학 전공자를 많이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황형규·박소운기자

## 문화 칼럼

# 외국선 ‘文史哲’ 살아나는데



이 태 동

문학평론가  
서강대 명예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목표는 그의 대선 공약처럼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위해 길을 닦고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이념보다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매슈 아널드가 주장했던 것처럼 인문학적 가치를 외면하고 실용주의에만 매달리게 되면, 우리 사회가 속물주의로 타락하게 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성숙한 문화의식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대학의 중심 학문인 인문학이 고사(枯死)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학제간의 교류만을 강조했을 뿐, 사회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대를 걸었던 이명박 대통령 역시 다른 것보다 실용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인성 교육의 핵심인 인문학 부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인문학의 깊이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표를

좀 더 철학적으로 규명해 주기 때문에 과학자와 법률가는 물론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인문학 지식은 그들의 사회적 사명의식을 확인하고 삶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철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줌과 동시에 우주 및 사회의 구성 원리를 터득하게 해 왜소한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문학은 예리한 통찰력과 비평적인 판단능력을 함양시키는 물론 역사와 함께 인간의 꿈과 인식론적인 깨달음의 지혜를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경험의 폭을 크게 넓혀준다.

인문학이 비록 오랫동안 실용주의에 묻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영미 대학을 중심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대학생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 강의실에 몰리고 있는 물결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상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정부 들어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되고, 정부가 대학 교육의 모든 책임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사회적 인식의 도움만 얻게 되면, 실용적인 학과에만 상대적으로 많이 몰렸던 우수한 두뇌 집단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처럼 인문학 분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를테면 학부에서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로스쿨에 가기를 원할 때, 그들의 학부 공부가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학적성시험(LEET)에도 타 학과를 공부한 학생들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인문학은 주체적인 삶에 대한 지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인간성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졸업한 후 그들의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학도의 경우, 법관이나 변호사가 된 후 개인의 인문학적 지식과 경험이 인간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직업윤리를 지키며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법률가들이 인간에 대한 예의와 신의,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같은 인간가치를 외면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해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선진국에 대한 우리의 꿈은 결코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선진국 진입은 건전한 문화적인 토양 없이 는 실현 불가능하다. 문화는 인간성 연구와 인간 가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피어난 상상력의 꽃이다. 먹고살기 위한 실용성 추구도 좋지만 선진국의 문은 성숙하고 창의적인 정신문화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 시민과 함께한 철학 세미나 29년

## 철학 대중화 내건 계명대 '목요강좌' 499회째

22일 오후 5시 대구 계명대 바우어관 3층 강의실. 499번째 '목요철학세미나'가 열렸다. 시민·교수·대학생 등 200여 명이 강연장을 메웠다. 1980년 10월에 시작해 29년째 이어져온 대구의 명물 강좌다.

이 대학 임수무(66) 교수가 '규범·자유·생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은 평소와 달리 발표만 있었다. 임 교수의 고별 강좌를 겸하느라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기념식으로 이어졌다.

이날은 질문이 없었지만 강좌의 진면목은 질문이다. 발표 뒤 쏟아지는 질문으로 예정했던 2시간은 30분씩 예사로 연장된다. 철학 강좌답게 수강하는 시민들의 질문 수준도 높다.

◆**시민들과 함께한 인문강좌**=목요철학세미나는 학술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대학이 여는 세미나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시민과 호흡하며

매주 열리는 강좌는 국내 학술계를 통틀어도 흔치 않다. 그것도 딱딱한 철학은 거의 없다. 인문학의 위기 시대에 목요철학이 주목받는 이유다.

세미나는 80년 암울한 시대에 시작됐다. 당시 민주화의 물결은 학생과 시



슬라보이 지제크



위르겐 하버마스

## 시민 "어렵게 느껴지던 철학 쉽게 다가와"

민들의 이념적 욕구를 자극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철학 조류를 이해시키자며 뜻이 모아졌다.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가 모토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만 해도 위협했던 마르크스사상 등이 세미나에 오르기도 했다. 수강 인원은 많을 때는 500명을 넘겼다.

초청 강사의 면면은 세미나의 위상을 엿보게 한다. 국내에선 박이문·윤사순 교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가

톨릭농민회 박석희 주교, 김지하·박노해 시인 등이 참여했다. 위르겐 하버마스(독일), 슬라보이 지제크(슬로베니아), 피터 싱어(미국) 같은 해외 석학도 강단에 섰다.

5년 전부터 틈만 나면 강좌를 찾는다. 주부 김은정(43·수성구 황금동)씨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철학이 석학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니 쉽게 와 닿는다"며 "책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지적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세미나 탄생시키기도=강좌가 연륜이 쌓이면서 철학과 학생들이 먼저 영향을 받았다. 이 강좌를 본떠 83년 '야외철학세미나'가 탄생했다. 다른 학과에도 자극이 됐다. 사학과는 '사학인의 역사 읽기'를 만들었고, 문예창작과는 '문학예술포럼'을 월 1회 열면서 계명대에선 문·사·철 세미나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목요철학은 올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시민인문강좌'도 운영한다. 문경·거창·함천·울릉 등지에서 총 120회가 열린다.

철학과 교수인 계명대 이진우(52) 총장은 "목요철학세미나는 대구의 인문학적 잠재력을 보여 주는 성과"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인문학 대중강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제 500회 목요철학세미나는 다음 학기로 넘겨 9월에 특별 심포지엄으로 열 계획이다. 대구=송의호 기자

## "유용성·효율성만 따지면 인문학 설 땅 잃어"

### 세미나 이끌어온 임수무 교수

"머칠 굵은 아버지와 아들 앞에 빵 한 조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공평할까요. 두 조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흔히 답하지요. 그건 경제학이나 경영학적 접근입니다. 인문 정신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빵 한 조각을 몽땅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빵을 혼자 먹겠습니까?"

1980년 '목요 철학 세미나'를 처음 만들 때부터 참

여해 온 계명대 철학부 임수무(66·사진·중국철학) 교수는 '인문 정신'을 빵 나누기에 비유하며 "인문 정신을 회복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노자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8월 정년을 앞두고 499회에서 고별 강연을 했다.

임 교수는 "목요철학이 초창기엔 강의실이 터져 나갔는데 요즘엔 참석자가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우리 교육이 언제부터가 유용성·효율성만 따지는 바람에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인문학의 설 땅이 점



그는 "환갑을 지나고 보니 서양철학은 시대 유행에 매몰되고, 동양철학은 경전 해석에 급급했던 것 같다"며 "우리 철학, 내 철학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구=송의호 기자

차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해외에 나가 있을 때를 빼고 강좌가 있는 목요일은 아예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았다. 철학과 교수들은 이날 빠지면 일종의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yeeho@joongang.co.kr

# 중학생 “알아야 할 게 많은데 뭘 읽어야죠”

# 워런 버핏 “세상을 알려면 먼저 신문 읽어라” ‘신문 많이 읽고 비판적 사고 훈련하라’

교육평가원이 말하는 ‘수능 대비법’은...

##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세상을 알려면 신문을 읽어라.”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한 소년에게 한 말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장에서다.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온 7학년생(중학교 1년에 해당)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소년은 “세상에 알아야 할 게 많지만 학교에선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라고 버핏에게 물었다. 소년은 “당신이라면 대답해 줄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관중석에서는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버핏은 “먼저 신문부터 읽어라”고 권했다.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들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된다”며 “스포츠토크 금융뉴스도 그런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걸 알고 싶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핏과 함께 연단에 앉아 있던 찰스 멩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은 소년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너는 이미 성공하는 법을 알고 있구나”라고 칭찬했다. 버크셔 주총은 주주들이 나와 버핏과 멩거, 두 사람에게 세계경제 현황과 투자 방향, 개인적인 궁금증 등 각종 질문을 던지면 이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버핏은 43년 전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운 뒤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이 회사 주가는 연평균 21%씩 올랐다. 620억 달러의 재산가인 그는 올 3월 미 포브스지 집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 갑부로 올라섰다. 버핏은 기업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해 장기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통해 경이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버핏은 2006년 전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버핏의 평생 사업파트너인 멩거 부회장은 별도 회사인 웨스코 파이낸셜을 이끌고 있으며 그 역시 노련한 투자가로 명성이 높다.

올해 대입수학능력시험은 교과서 이외 분야의 소재를 활용한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이에 따라 원리는 교과서에서 배우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수능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수능시험 준비와 진학지도 등에 활용할 ‘2009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방법 안내’와 ‘2009학년도 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 등 2개 자료를 발간, 전국 고교에 배포했다. 평가원은 11월13일 실시되는 올해 수능에 대해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고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 보완하면 난설을 이끌고 있으며 그 역시 노련한 투자가로 명성이 높다.”

◆언어영역=일상 대화, 토론, 광고, 뉴스강연 등을 폭넓게 접하고 내용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한 후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하다. 쓰기에서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생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리하기,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 수집해 조직하기,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내용을 표현하기, 맞춤법,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 고쳐쓰기 등을 연습한다. ◆수리영역=수학의 기본 개념·원리·법칙의 이해능력과 추론능력 등을 측정하므로 기본적인 계산능력과 전형적인 문제해결 절차인 ‘알고리즘’ 구사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문제에 포함된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의 의미와 관련된 성질을 알고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외국어영역=듣기 연습에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을 때는 받아쓰기를 하면서 듣지 못한 단어·구·문장을 유추해 본다. 읽기에서는 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매개체로 사용되는 대명사에 주목하고 분위기나 심경을 나타내는 어휘를 익혀두도록 한다. 주제·요지·제목 등을 추론하는 문항의 경우 문단 첫 문장을 읽으면서 추측해둬 끝까지 정독하면서 추측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한다.

## 시론

# 세상과 통하는 문, 신문을 펼치자



김용희

평택대 교수·문학평론가

아침에 눈을 뜬다. 현관에 나가본다. 아침, 찬 공기 속에 신문이 바닥에 누워 있다. 도시인의 하루는 신문 읽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얼른 신문을 집어 들고 냉큼 방안으로 들어온다. 어릴 적 아버지는 대문 앞에 가서 신문을 가져오도록 시키곤 했다. 그리곤 신문을 나무 마룻바닥에 양껏 펼쳐 한참을 들여다보곤 하셨다. 다 본 신문지는 재래식 화장실에 등장하곤 했다. 때로 신문은 가난한 집 방 안의 도배지나 장판을 깔기 전 속지가 되기도 했다.

### 정보 편식하는 포털과 달라

어느 땐 친했던 반 친구의 몸에서 석유 냄새가 나곤 했다. 집이 가난했던 친구는 자전거도 없이 새벽마다 100부가 넘는 신문을 돌렸다. 대학 다닐 때 대학신문사 기자였던 친구는 자신이 만든 신문으로 학우들이 자장면 그릇 싸는 것을 못 견뎠다.

신문과 신문지는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마감한다. 첫새벽의 신선한 정보에서 시작해 도배지로 화장지로 그리고 마침내 자장면 그릇

을 싸서 내버려지는 짧고도 격동적인 삶.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시켜 먹은 자장면을 쌀 신문 지조차 없다.

이들은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다. 이들의 아침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로 시작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보고 싶은 뉴스만 클릭한다. 검색어 순위들만 찾는다.

그러나 종이신문을 멀리하는 요즘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최근 뉴스가 있다. 미국 최고 학생 12인에 뽑힌 한인2세 이형진(패트릭 리) 군 이야기다.

예일대에 입학하게 된 이 군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독려로 신문 5, 6개를 집안 곳곳에 펼쳐 놓고 읽었다고 한다. 읽는 재미는 쓰는 능력으로 이어져 고교시절 교내 신문과 지역 신문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신문은 이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를 한꺼번에 부러놓는다.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것, 개별적 관심사와 관심사 밖의 것을 함께 담아낸다. 중요한 몇 가지만을 똑같이 뉴스 시간에 전하는 TV와 다르다. 개별적, 편향적으로 클릭하는 포털 사이트와 다르다.

신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최첨단의 척후병이다. 신문을 읽지 않는다면 시대와 역사의 현장에 설 수가 없다. 때로 정권에 대한 비판자거나 기존 정치에 조력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문은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시대의 발언자임에 틀림없다.

4월 7일은 신문의 날이다. 청년들은 길을 걸으며 MP3를 들고 전철을 타선 PMP로 영화와 텍스트를 본다. 종이문자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한 백년이 지나 사람들은 신문을 고고학에서 찾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 도시인들은 언제나처럼 아침 현관문을 열며 신문을 찾을 것이다. 신문은 누군가의 신문고(申聞鼓)이고 동네 아낙의 우물가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우리 시대 여전히 매력적인 읽을거리다. 생각거리의 화덕이다.

### 인문학적 상상력의 전달자 되길

다만 이 시대 신문은 대책 없이 단순히 비판만을 즐겨서는 안 된다. 사실(fact) 제시에만 언론의 몫을 다했다 안주해서도 안 된다. 신문은 격변하는 문명의 현장에서 책임 있는 전망의 발화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신문은 정치 공방에 중요 지면을 다 소진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유연함이 필요하다. 상상력을 선도하는 또 다른 상상력의 전달자가 됐으면 한다. 일테면 최근 두바이 발전 현장에 대한 진취적 기사가 그 좋은 예다.

1920년대 시인 김동환의 시에서처럼, 아침 도시인들의 꿈길을 밟고 와 가만히 머리 위에 물을 붓고 떠나는 북청 물장수처럼 신문은 맑은 물로 우리의 정신을 깨워준다. 그렇게 될 때 신문은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시가 될 것이다.

# 신문으로 글 배워 '작가' 된 과일가게 할머니

## 60여 년 메모 모아 자전 소설 낸 전찬애씨

“이게 없으면 허전해서 일이 안 돼.”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전찬애(67·사진) 할머니는 집을 나설 때 불편한 자루를 반드시 챙긴다. 전씨는 볼펜을 ‘내 친구’라고 부른다. 구성진 사투리에 걸걸한 웃음을 가진 그는 아홉 살 무렵부터 펜을 벗삼아 틈틈이 글을 써왔다. 그리고 글 쪽지들을 모아 최근 자전적 소설 『고향 떠난 두 남매 길』(살과꿈, 382쪽, 1만2000원)을 펴냈다.

달콤한 참외 냄새가 가득한 가게 한켠엔 그가 “보물”이라고 부르는 저서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과일과 책을 함께 판다고 했다. 가게에는 네 자녀가 걸어 줬다는 ‘경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출판 소감을 묻자 한참을 먼 산을 바라보다 왈락 눈물을 쏟았다.

“대단한 작가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글을 쓰지 않으면 못 견딜 거 같아서 끼적끼적하던 걸 그냥 남기고 싶었던 게지. 책을 내고 엄청나게 울었지.

감격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잠도 못 잤어.”

무엇보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다. 경남 의령의 가난한 농가 출신인 전씨는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어머니가 몸져 누웠을 때도, 콩 들인 고추농사가 내리 망했을 때도 펜을 잡고 상한 마음을 달랬다. 펜은 고된 삶을 달래 주는 동반자였다.

전씨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질 못했다. 대신 신문이 글 선생님 노릇을 했다. 신문을 보며 한글을 익힌 뒤 『심청전』 『장화홍련전』 같은 연재소설을 읽으며 글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읽고 나선 꼭 동네 아이들에게 다시 얘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 노릇을 했다. 그러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기쁠 때도, 속상할 때도 그저 펜으로 내 마음을 쓰면 속이 편해졌어. 그래서 밥을 하면서도 글을 쓰고, 김을 매면서도 쓰고, 사과를 팔면서도 글을 썼어. 실성한 사람처럼도 보인다



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글을 쓰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쌓아온 메모가 수천 장. 글 쓰는 과일가게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에 지역 신문·방송에서 줄이어 찾아왔다. 지역에선 유명인사가 됐다. 어

느 날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원고지에 옮겨 정리했다. 이를 신춘문예에도 내밀어 봤다.

“언감생심이지. 대신 이렇게 책 냈잖아. 그거면 됐어. 나는 펜만 있으면 돼. 그런데 자주 주변 이야기를 글로 더 쓰고 싶어지네. 젊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어봤다.

“어떤 상황이든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한 계단씩 차근차근 밟아가면 어떤 힘든 일도 지나가는 법. 난 살면서 그걸 배웠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책 쓸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글을 쓰는 건 내가 세상과 통하는 방법이야.”

글을 한 수 청했더니 개구리 참외 박스를 찢어 무릎에 놓고 쓰기 시작했다.

“그제 어여쁘게 방긋방긋 웃던 벗꽃들은 어디론지 가버렸네/ 나의 벗이 사라져 지금 나 혼자니 서운하다.”

진해=전수진 기자

sujiney@joongang.co.kr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19일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잭 타이 중사의 장례식에서 의장대가 관을 감쌌던 성조기를 걷고 있다. 1950년 한국전 참전 중 20세의 나이로 숨진 타이 중사는 2002년 미군이 북한에서 실시한 미군 유해 발굴작업으로 58년 만에 조국에 묻히게 됐다.

# 58년만에 조국땅에 묻힌 美중사

“받들어 총!(Present arms!)” 정확히 오후 3시가 되자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Arlington) 국립묘지에서 의장대원 7명이 하늘을 향해 총을 세웠다. 이와 동시에 묘지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정차해 있던 운구차에서 성조기에 덮인 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운구(運柩)를 맡은 의장대원 6명은 발을 맞춰 가며 2개의 대형 화환을 배경으로 푸른 카펫이 깔려 있는 묘역에 관을 안치했다. 알링턴국립묘지 측에서 준비한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장례식에 도착한 타이 중사의 가족과 버지니아주에 사는 한국전 참전용사 10여명이 그 뒤를 따랐다.

20세의 나이에 한국전쟁에서 숨진 잭 타이(Tye) 미 육군 중사는 58년 만인 19일 이렇게 조국에 돌아

### 한국전쟁서 숨진 잭 타이, 알링턴 묘지 안장 美 끈질긴 유해발굴... 압록강 주변서 찾아

아왔다. 세 발의 조포(弔砲)가 울려 퍼진 후 장례식장 후미에 부동 자세로 서 있던 의장대원이 트럼펫으로 추모곡을 연주했다. 이어 관을 지키고 있던 의장대원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관을 싣 성조기를 접기 시작했다. 길이 2m의 대형 성조기가 밑면 50cm의 삼각형으로 접히자 의장대원 한 명이 이를 3초 동안 가슴에 소중하게 품었다. 지휘관이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이 성조기를 타이 중사의 동생 톱 타이(54)에게 전달하면서 장례식이 끝났다. 타이 중사는 20세에 평안북도

압록강 인근에 위치했던 중공군의 포로수용소에서 병사(病死)했다. 고교에 다니다가 18세의 나이로 미 육군에 입대한 그는 1950년 한국에 파병됐다. 그가 속한 부대는 제2사단 38보병연대.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북진(北進)하던 미군의 최전방에 있다가 1950년 11월 평안북도 청천강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로가 됐다. 가족들은 타이 중사가 중공군의 포로가 되기 전에 뛰어난 활약으로 두 개의 훈장을 받아서 조기에 중사로 진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2년 북한 당국과의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통해 중공

군의 포로수용소가 있었던 압록강 주변에서 타이 중사를 포함한 대규모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다. 하와이에 위치한 전쟁포로·실종자연 합사령부(JPAC)의 미군 유해 감식소는 4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타이 중사의 유해를 확인, 지난 3월 타이 중사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타이 중사가 한국전에서 ‘실종’된 뒤 태어나 형의 사진을 보고 자란 동생 톱은 “형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해준 우리 정부가 무한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형과 같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한국의 자유가 지켜졌고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 美 수중탐사팀, 한강에서 '58년전 美軍유해 찾기' 착수

##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

20일 오전 서울 한강 단산철교 아래 강물은 평소 때와 다름없이 초속 1m 정도의 속도로 잔잔하게 흘렀다.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인지 좀 탁해 보였다.

강 한가운데에서 고무보트에 나뉘 단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공기 통을 맨 외국인들이 물 속으로 들어 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다.

이들은 6·25전쟁 때 추락한 미군 전투기와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합동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JPAC)' 소속 수중탐사팀이었다.

▶본지 5월 16일 A9면 참조  
이 팀은 잠수요원 9명, 폭발물처리 담당관과 인류학자, 항공기 전문가, 행정요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중 음파탐지기인 '소나(SONAR·Sound Navigation And Ranging)'와 금속탐지기, GPS(위성 항법장치) 장비 등을 동원해 탐사작업을 벌였다. 소나는 물 속에서 음파를 발사한 뒤 돌아오는 것을 분석해 '어떤 물체'가 있는지 찾는 장비로 바다에서 잠수함을 찾아낼 때도 사용된다. GPS 장비는 소나와 금속탐지기 등이 물 속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판단하는 장소를 정확한 좌표로 표시해준다.

JPAC 관계자는 “이 장비들은 진흙이나 모래 속 1~2m 정도에 파묻혀 있는 것도 찾아낼 수 있다”며 “팀원들은 어제 소나와 GPS 장비 등을 이용해 잠수요원들이 ‘직접 살펴 봐야 할’ 곳을 미리 선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공동 작업을 벌이는 JPAC 수중탐사팀은 이날 한국군 특전사 수중팀 10여명의 도움을 받아 수심 8m 한강 바닥을 샅샅이 훑고 다녔다.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작업은 이미 전쟁 때 시작됐지만 JPAC이 한국에서 수중 유해 탐사작업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에 만 네 곳에 전투기 추락  
JPAC 수중탐사팀이 이날 작업을 벌인 곳은 한강 남섬과 단산철교 사이 강 바닥이었다. 이들이 찾는 것은 '타이거캣(Tigercat)'으로 불렸던 F-7F 전투기. 2차대전 막판에 개발돼 미 해군·해병대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가한 함재기다.

전사(戰史)에 따르면 이곳 주변에선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을 전후로 미군 폭격이 많았다. 또 서울 수복 직전인 9월 22일 지금의 한남대교와 행주대교, 단산철교 인근에서 미 7사단과 해병대의 도하(渡河)작전이 있었다고 한다.

월리 우즈 수중탐사팀장은 “당시 목격자와 전사 등에 따르면 한강 남섬 근처에 F-7F 전투기 한 대가 떨어

“단 1%의 가능성도 쫓는다”... 단산철교부터 수색

최정예 요원에 최첨단 장비... 인류학자도 참여

어졌으며, 그 비행기에는 조종사와 레이더 관제사 등 2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기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1km 지역을 꼼꼼히 찾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은 정확한 탐사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인들이 발굴을 하겠다거나 호기심 등으로 달려들어 유해나 유류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JPAC은 이달 말까지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하류 쪽 4km, 8km, 12km 지점과 상류 쪽 10km 지점 등 네 곳에서 탐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일대에서 F-7F 전투기 네 대가 추락했으며, 비행기마다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JPAC은 이미 3~4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기초 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 팀장은 이번 탐사작업에 결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전쟁 이후 수많은 홍수와 급류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추락 전투기가 물에 완전히 휩쓸려 갔을 수도 있고 깊은 뱀속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다”며 “아직 전투기로 추정되는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강에서 많은 준설공사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

런 작업을 했을 때 미군 전투기나 유해와 관련된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탐사작업은 쉽지 않았다. 물속 시계(視界)가 불과 1m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색팀은 어

려운 작업에 대한 불만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JPAC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그가 죽었을 때 유해만이라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캄보디아에서 발굴 성공  
JPAC 수중탐사팀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항공기 전문가를 추락한 비행기가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하고, 폭발물 처리 담당은 비행기에 있을 수 있는 폭발물을 처리하는 것이 임무다. 또 인류학자는 유해의 일부라도 발견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한다. 이번에 참가한 인류학자인 리처드 윌스씨는 “미군 유해 발굴작업에는 반드시 인류학자 한 명이 참가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투기 잔해가 발견돼도 이 팀이 즉시 인양작업이나 유해 발굴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JPAC은 수중 유해 발굴작업을 할 때 일단 수중 탐사를 한 뒤 비행기 잔해 등이 나오면 인양 장비 등을 갖춘 발굴팀을 다시 파견, 본격적인 발굴작업을 벌이기 때문이다.

우즈 팀장은 “JPAC은 이미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수중 유해 발굴을 성공한 적이 있다”며 “우리는 미군 전사자 유해가 있을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JPAC(Joint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Accounting Command)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합동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 2003년 10월 CIL(중앙유해신원확인소)과 JTF(특수임무부대)를 통합해 창설됐다. 직제상 태평양사령부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방부가 통제한다. 2차대전과 한국전쟁, 월남전, 걸프전 등에서 사망한 미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감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대의 모토는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 이며, 부대 휘장에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라는 문구가 있다. 해군 소장이 부대장이며, 전 세계에 18개 발굴팀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JPAC)가 베트남에서 수중 유해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07년 11월 15일 촬영한 것이다.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 제공)

#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댕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